논어 17편 양화 26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年四十而見惡焉，其終也已。」

독음 · 자왈 년사십이견오언 기종야이

쉬운 풀이(요약) · 마흔이 되어서도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처신을 고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변화가 어렵다는 경계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年 해 년 년 / 四 넉 사 사

十 열 십 십 / 而 말이을 이 / 見 볼 견 견 / 惡 나쁠 악 악

焉 어찌 언 언 / 其 그 기 / 終 끝낼 종 종 / 也 어조사 야

已 이미 이 이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